

효과적인 운동이 되도록 힘을 모으자

박 현 / 병원신보 취재부 기자

지 난해 12월 1일은 제6회 세계 에이즈의 날이었다.

세계 에이즈의 날은 모든 사람에게 인류가 에이즈의 전파를 막을 수 있다는 사실과 개인의 책임 있는 행동으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다는 점을 널리 알리고 감염자와 환자에 대한 동정심과 이해를 촉구하며 보다 많은 사람이 에이즈 종식을 위한 세계적 노력에 동참하도록 권고 하자는 데 그 제정목적이 있다.

'93년도의 표방과제는 「Time to Act(지금 당장 행동으로)」로서 에이즈의 위험이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행동을 시작하여야 함을 역설한 것이다.

에이즈는 '81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한 동성연애자에게서 처음 발견된 이후 '93년 현재 전 세계적으로 1천 4백만 명이상이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2010년에는 10억 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외신에 따르면 지구상에서 하루에 5천 명의 새로운 에이즈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국내에서는 '85년 첫 감염자가 발견된 이후 지난해 11월 말 현재 사망자 39명을

포함, 3백 14명으로 집계되고 있으나 실제는 3천여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에이즈가 심각한 사회문제라고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 매우 드문 것으로 조사돼 충격을 던져 주고 있다. 심지어 에이즈가 모기, 헌혈, 수영, 기침, 재채기, 키스 등에 의해 전파된다는 그릇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뿐 아니라, 심한 경우는 에이즈 환자와 악수만 해도 감염된다고 알고 있는 경우도 있어 그 심각성을 더해 준다.

20세기 인류 최대의 형벌로 불리우는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국내에서의 감염자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내국인끼리의 성접촉에 의한 경우가 급증하고 있어서 에이즈 문제가 더 이상 남의 얘기가 아니라는 점을 모두가 인식하고 퇴치운동에 앞장서야 한다는 움직임이 있어 매우 고무적이다.

지난해에는 제6회 세계 에이즈의 날을 맞아 순수 민간단체들이 앞장서 가두캠페인을 벌이고 에이즈 예방 심포지엄을 갖는 등 다채로운 계몽행사를 벌여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현재 순수 민간단체 차원에서 에이즈 퇴치운동을 벌이고 있는 단체는 대한에이즈협회(회장 강영훈), 한국에이즈연맹(회장 정도균), 에이즈 퇴치를 위한 한국 시민의 모임(대표 구자준) 등 3개 단체.

이밖에도 대한결핵협회, 가족계획협회, 건강관리협회, 보건협회, 여자의사회, 병원협회, 의학협회, 약사회, 한의사회 등 많은 보건의료단체들이 에이즈 퇴치 및 예방을 위한 계몽운동에 참여하고 있어서 반가운 일이다.

에이즈 퇴치 민간단체들은 날로 확산되는 에이즈 감염 피해를 막기 위해 에이즈 상담전화로 상설 운영하는 등 내년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들 단체들은 지난해 12월 1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힐튼호텔, 지하철 1호선 시청역 광장 등에서 제각기 기념행사를 가졌다.

한국에이즈연맹은 1일 오전 세종문화회관에서 한국여자의사회(회장 신영순)와 공동으로 한국 에이즈 예방주간 선포식을 갖고 시청앞 광장까지 가두캠페인을 벌였다.

대한에이즈협회도 이날 힐튼호텔에서 「성공적인 에이즈 예방전략」을 주제로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들 순수 민간단체들 중 한국에이즈연맹은 지난해 6월에, 대한에이즈협회는 조금 뒤인 7월에 창립됐다. 에이즈 퇴치를 위한 한국 시민의 모임은 에이즈에 감염된 金모 씨(29)의 「겨울허수아비도 사는 연습이 필요하다」라는 자서전을 펴내는 과정에서 뜻을 같이 하는 시민들이 모

여 지난해 3월에 탄생시킨 단체이다.

그런데 보다 효과적인 에이즈 퇴치 및 예방운동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들 3개 단체가 힘을 합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이들 단체의 행사에 참여했던 한 시민의 「한국에이즈연맹은 뭐고 대한에이즈협회는 또 뭘니까」라는 질문에 자세히 답변을 해주긴 했으나 웬지 아쉬움이 남는다.

과연 같은 일을 하는 단체가 여러 개 필요한 것일까. 국민들에게 혼란만을 주는 것은 아닐까.

물론 에이즈의 심각성에 비추어 볼 때 3개 단체가 아니라 30개 아니 3백 개의 단체가 더 생겨도 나쁠 것은 없다.

그러나 에이즈에 대한 정확한 지식도 갖지 못한 국민들에게 혼란만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갖게 하기에는 충분하다.

이들 단체들이 생겨나기 전에 보사부나 정부측에서는 대한결핵협회나 대한가족계획협회 등의 조직을 이용한 에이즈 퇴치운동을 전개할 경우의 효율성이나 장점에 대해 충분히 검토했어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본다.

지금에 와서 이들 단체들의 흡수 통합 등이 어렵다면 운동의 효율성 제고라는 차원에서 보사부가 통제하여 각종 행사를 공동으로 주최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아무쪼록 우리 곁에 다가와 있는 에이즈의 심각성을 국민 모두가 다시 한 번 인식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지혜를 갖도록 새해에는 보건의료단체들과 민간단체들이 앞장서야겠다. 卞